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의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경축 제34주년 승리절

# 10월 15일은 사망을 이긴 승리자가 출현한 날

### 승리자 한 분의 출현으로 온 인류가 '승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 아시안게임, 락과 눈물로 금메달을 빛어낸 영광의 승리자들

#### 아시안게임의 승리자들

은 국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던 아시안게임이 4일 막을 내렸다.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우승한 선수들이 전해주는 승리의 드라마는 온 국민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심어 주었다. 스포츠 없이 자력으로 훈련하는 악조건 속에서 아시안게임 한국인 최다 메달을 획득한 박태환 선수. 그의 어깨는 70대 노인의 어깨처럼 노화가 진행되었다니 각고의 훈련으로 빛어낸 상처가 그를 더욱 빛나게 한다. 씨름계에서 세 번째로 그랜드슬램을 이룬 김현우 레슬링 선수는 또 어떤가. 뛰어난 기량으로 상대 선수를 압도한 그 뒤에는 인내로 이겨낸 고강도 훈련이 있었다. 모두 훈련 중 당한 온갖 부상을 극복하고 따낸 값진 금메달이다. 국민 요정 손연재 선수도 한국인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서 리듬체조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깜찍하고 예쁜 외모와는 별도로 그는 매일 8시간의 연습을 소화한 지독한 연습 벌레라고 한다. 또한 아시아 최강 농구인 이광을 맞아 역전과 재역전을 통해 승리를 따낸 한국농구의 금메달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였다. 그밖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의 드라마가 많다.

승리는 자신을 이겨낸 땀의 결정체

와 눈물에 많은 사람들은 열광한다. 승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 승리의 소식을 전해 듣기만 해도 '와' 하며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온다. 승리는 그냥 좋은 것이다. 우리는 왜 승리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 자신을 완전히 이긴 극기승자

'극기승자(克己勝者)'는 천하(天下)를 이긴다는 말이 있다. 자신을 이긴 자는 천하를 거머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자신을 이기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랑을 이긴 극기승자가 출현하였다. 그 위대한 존재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과연 그런 존재가 있을 법한 일인가.

여기서 무엇을 보아 그분이 극기승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첫째, 본인의 간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역행하여 살았다. 따라서 즐리면 안자고,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일하기 싫으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반대생활'을 철저히 함으로써 극기승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본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다. 극기승자가 되었다면서 행동거지가 자신

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는 극기승자가 아닐 것이다. 극기승자는 인류를 자신과 똑같이 여기고 살게 되어 있다. 그분은 극기승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야 한다'며 자신을 이기는 비결을 쉽게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본을 보여 생활하셨다.

셋째, 본인의 능력으로 알 수 있다. 극기승자가 되었다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극기승자는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우주와 한 몸인 고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조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의 약속대로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렸고, 한국에 여름장마를 못 지게 하였으며, 태풍이 불어오지 못 하게 하고, 계속해서 풍년들게 하였으며, 남북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였던 것이다.

승리제단을 설립하신 조희성 선생이 바로 그 극기승자인 것이다. 10월 15일은 조희성 선생이 극기승자가 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념일로 삼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조희성 선생을 본받아 극기승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승리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 가 될 것이다.\*

김중천 기자

### 9월 본부제단 6개지역 활동 시상

3지역 1등, 2등은 5지역, 3등은 4지역



3지역 이승에 권사가 상을 받고 있다

승리제단 신도회(회장 김상옥)는 본부제단 9월 활동에 따른 시상식을 10월 7일 구역장회의에서 거행하였다. 3지역은 지역 식구들이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 특히 안명숙 승사의 활약으로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다.

시상을 한 안명숙 대표는 "앞으로 구세주가 오셔서 주실 상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로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엄청난 영광으로 오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여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격려했었다.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승사, 지회장 이승에 권사), 지역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승사, 지회장 신순이 권사), 지역 3등, 4지역(지역장 윤봉수 승사, 지회장 이영에 권사)

구역 1등, 21구역 안명숙 승사, 구역 2등, 45구역 신순이 권사, 구역 3등, 1구역 박경옥 권사,

개인 1등, 신순이 권사, 개인 2등, 김영민 승사, 김인숙 집사, 개인 3등, 이영에 권사\*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46)

### "경축 34주년 승리절, 성탄을 경축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긴자가 되신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마귀 옥에 갇혔던 온 우주가 6,000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니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6,000년 만에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니, 온 우주가 고통과 사망이 다시 없는 승리의 개가를 영원토록 부르게 된 것입니다.

1980년 10월 15일 이 사람이 밀실에서 이긴자가 되었다고 한 그 날, 지개를 지고 산에 가니까, 일제히 나무와 풀이 이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한 다음에 춤을 추는데, 여러분들 나뭇 가지가 하늘 위로 올라가고, 하늘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도 나무가 춤을 추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붉은 나무가 허리를 구부러서 절을 하고 도로 서는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신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이 기뻐 날뛰며 춤추는 기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 구도의 길

### 愛隣如己애린여기

#### 최고의 율법,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지금까지의 보통 종교와 도(道)에서는 무엇 무엇을 하지 마라는 식으로 계율을 정했다. 즉 불교에서는 5계라고 해서 불살생(不殺生: 생명을 죽이지 마라), 불투도(不偷盜: 도둑질하지 마라), 불사음(不邪淫: 음행을 하지 마라), 불망어(不妄語: 거짓말을 하지 마라), 불음주(不飲酒: 술이나 약물을 먹지 마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에서도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해서 야훼(여호와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형제의 사정으로 사정없이 여겨야 한다. 인간은 부정적인 말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무엇을 하지 마라는 금지식(禁止式) 계율보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권고식(勸告式) 율법이 더욱 효과가 높다는 것 또한 과학적인 설명이다.

이러한 기성종교의 기본법이 되는 계명은 주로 무엇을 하지 마라는 식의 금지의 표현이 다수를 이루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물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가 수 많은 율법이 파생되어 나온다. 간단하게 말해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내 죄로 여겨야 하고, 형제가 실수를 하면 내 실수로 여겨야 하며, 형제의 사정으로

인간은 부정적인 말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무엇을 하지 마라는 금지식(禁止式) 계율보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권고식(勸告式) 율법이 더욱 효과가 높다는 것 또한 과학적인 설명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라는 율법이 최고의 율법인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경축 제34주년 승리절

## 승리절은 인류의 광복절, 하나님(부처님)의 승리하심을 봉축드립니다

2014년 10월 15일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